



사료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崔 明 郁

(제일제당 사료기술부장)

정부는 1980. 7.1을 기하여 사료가격 자율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후 각 사료공장은 7월 하순부터 8월초에 걸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약 3%의 사료가격인상을 단행하였고 약 1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재차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때문에 가격인상을 하여야 하며, 그 인상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가격 인상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양축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료공장, 양축가 입장에서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사료가격인상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가격인상의 배경

(1) 원료면에서 본 인상요인

배합사료가격은 7월 1일 이전에는 정부

고시가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최고 상한선을 설정, 그 범위내에서 최근 수년간 집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1월 12일 환율의 연동제가 실시되면서 부터 종전에 해 오던 가격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환율이 변경될 때마다 가격을 산정, 시행할 수가 없게 되면서 내려진 조치가 7월 1일의 사료 가격자율화 이었다.

사용원료의 80% 이상을 도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료공업 입장에서 7월 1일의 자율화조치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면 7월 이후 재차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구체적 배경은 무엇일까?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월 - 1월 22일 정부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했음 - 의 원료단가와 9월 ~ 10월 예상단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 인상요인과 원료별 인상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옥수수 가격의 상승

표 1. 환율인상 추이

항 목	1월(A)	8월	9월~10월(B)	인상폭((B)/(A))	비 고
환율변동	582.90	617.20	628.27	7.78%	9월: 625.05(추정) 10월: 631.49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축산진흥회가 도입창구가 되어 축산안정 기금을 감안한 기준가격(160\$/톤)으로 사료공장에서 인수하고 있는 상황은 가격자율화 이전이나 이후 변경은 없다. 그러나 환율연동제 실시로 인하여 옥수수 가격도 환율의 변동과 함께 인상을 거듭해 왔다.

표 1에서와 같이 첫째, 고정환율제를 실시했던 당시 우리나라 화폐인 원(W)과 달러(\$)의 환율이 582.90:1이었던 것이 금번 재차 인상을 하게 될 9~10월의 예상환율과 비교하여 보면 7.78%의 인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도입하고 있는 방법은 정부의 지불보증으로 미국 부두의 선적시점후 1년 뒤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C.C.C.(美 상품신용회사)와 4개월후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K.F.X.(한국의 화보유불)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 바 K.F.X.의 경우 Nego.시점부터 4개월간에 발생하는 환(換) Risk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하기로 되어있고 C.C.C.의 경우 최근 4개월간에 발생하는 환 Risk에 대하여는 축산진흥

기금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잔여 8개월간에 발생하는 환 Risk에 대하여는 사료 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K.F.X.과 C.C.C.의 구성비가 물량 Base로 대략 3:1의 비율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고정환율제 실시이후 6개월간의 환율차이(34.2W/\$, 617.2~582.9)가 금후 6개월에도 동일(同率)로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C.C.C.에 대한 8개월의 환차는 표 2에서와 같이 1.96%의 부담은 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옥수수의 인상폭은 1월과 9~10월시점과 비교하여 볼 때 상기 2가지 요인으로 총합계 9.74%의 인상을 안고 있는 것이다.

② 기타 국내원료가격의 상승

지난 1월과 9~10월 중에 사용하게 될 제반 기타 원료의 가격인상폭을 볼 것 같으면 다음 표 3과 같다.

즉, 대두박의 경우 1월 21일 정부의 사료가 인상시 159.65W/kg이었던 것이 8월 26일 까지 두 번 인상되어 189.8W/kg으로 18.89%인상되었고, 어분의 경우 조단백 55%기준 225W/kg이었던 것이 현재는 270W/kg을 호

표 2. C.C.C. 및 K.F.X에 따른 환차부담

	구 성 비	내 용	인 상 폭	구성비 감안한 실질 인 상 폭
C. C. C.	25 %	{(582.9+45.73(8개월))÷582.9}	7.85%	1.96%

표 3. 제반 국내원료가 인상폭

단위 : W/kg (부가세제외)

구분	원료명	1월	9~10월	인상폭	비 고
대두박		159.65	189.80	18.89%	1월21일 : 159.65 8월2일 : 189.80
어분		225	270	20	7월4일 : 169.30 조단백 55%제품기준
호마박		120	180	50	
채종박		97	130	34	
탈지강		71	80	12.68	
인산칼슘		225	288	28	인(P) : 18%제품기준
옥수수글루텐		175	230	31.43	조단백55%제품기준
당밀		70	75	7.14	
기타첨가제				30	종합영양제, 항생제등 일괄기준

가 품귀현상마저 일고 있으며 기타 호마박의 경우 50%, 채종박 34%, 탈지강 12.68%, 뼈의 주 성분인 인(P)의 공급원인 인산 칼슘은 28%, 옥수수 글루텐은 31.43%, 당밀은 7.14%, 또한 사료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종합영양제, 무기물제, 항생제등의 약품은 3월 1일을 기해 30%인상되었다.

③ 이상과 같이 각각의 원료가격상승이 사료의 원 재료비 상승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표 4와 같다.

즉, 옥수수등 국내 제반 원료의 인상폭은 배합사료 총원료사용구성비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0.82%의 원료비 인상요인이 있다는 셈이 된다.

(2)기타 비용의 인상폭

배합사료 제조비중 원료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간접비 부문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조간접비중 인건비상승, 국내 인플레이션(inflation)에 의한 제반 상승요인이 있지만

표 4. 원료가격 상승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구분 원료명	원료가인상폭(A)	사료중구성비(B)	(A)×(B)원료비상승폭	비 고
옥수수	9.74%	60%	5.84%	
대두박	18.89	12	2.27	
어분	20	3	0.6	
호마박	50	0.5	0.25	
채종박	34	1	0.34	
탈지강	12.68	8	1.01	
인산칼슘	28	0.2	0.06	
옥수수글루텐	31.43	0.8	0.25	
당밀	7.14	1.5	0.11	
첨가제	30	0.3	0.09	
기타		12.7	-	기타원료는 인상폭 불고려
합계		100.0	10.82%	

이 중 특기할 점은 그동안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 오던 사료공장시설 근대화 조치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 상각비의 부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각 공장에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여 원가계산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 투자 자체가 각 공장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금번 사료가격 인상 요인으로 감안하는 것은 필자 본인의 의견으로는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제의 하였다.

다만 제조간접비중 변동비에 해당하는 포장비의 경우 표 5 에서와 같이 당초 정부에서 1월 21일 가격인상시 사료 톤당 3,008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던 것이 현재는 4,000으로 32.98%인상된 것은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표 5. 포장비 인상폭

구 분	1월	9-10월	인상폭	1월 가격은
포장비	3008	4000	32.98%	정부산정가기준

2. 가격인상폭

상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료비의 인상폭과 포장비의 인상폭 두가지만 감안하여 볼 때 10.64%의 인상은 사료공장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참조)

표 6. 원료비, 포장비 인상요인이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

구분항목	인상폭 (A)	총원가에 대한 구성비 (B)	제 품 가 인 상 폭
원 재 료 비	10.82%	90.4%	9.78%
포 장 비	32.98%	2.6%	0.86%
기타제조경비	-	7%	-
계		100	10.64%

(상기 10.64%의 인상폭을 계산한 제반근기중 원료가의 인상폭, 사료중 원료의 구성비등은 필자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다소의 견해차이는 양해바람)

(단, 총원가에 대한 구성비는 1980년 1월 22 정부의 사료가 인상시 원가구성비 적용)

3. 금후의 국제원료시세변동예상 및 그대책

본인의 견해로는 앞으로 2개월후, 4개월후를 전망하여 볼 때 상기와 같이 가격인상의 불가피성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변화를 간과할

표 7 : 옥수수 국제시세변동추이

(시카고 C&F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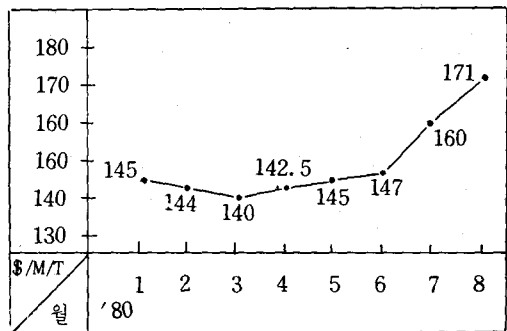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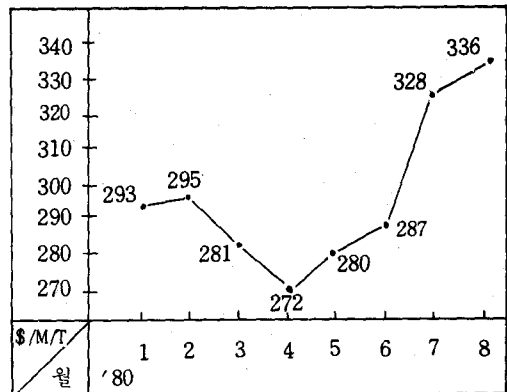


표 8 : 콩의 국제시세변동추이

(시카고 C&F 기준)



수 없기에 감히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즉, 표 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와, 직결되는 옥수수, 콩의 국제시세가 금년 6 월이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다.

옥수수의 경우, 현재축산진흥안정기금을 감안한 기준가격이 160 \$/MT 로 되어 있으나 7 월을 기점으로 160 \$ 선을 넘어 8 월에는 170 \$ 선에 와 있다. 이것은 기금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한 축산진흥회로서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안정기준가격 자체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8 월 2 일 인상된 대두박가격도 원료인 콩가격이 300 \$ 선에서 결정되었던 만큼 340 \$ (8 월 20 일 현재) 대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또한 언젠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인상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시기가 옥수수나 콩이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입항, 사용하게 될 시점을 기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운 기일내에 영향이 온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 발동에 떨어진 사료가 인상요인, 또한 앞으로 닥쳐올 또 한번의 충격을 완화, 소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서 있다.

혹자(或者)는 말한다.

우리나라의 원료 하역시설의 태부족으로 인한 Cost up, 이것을 일본의 경우는 정부 당국에서 주도하여 항만에 대규모 곡물 하역시설 및 저장소를 설치하여 옥수수가건 원액이건 콩이건 간에 공동시설 활용을 통하여 하역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가고,

요즈음 말썽을 빚고 있는 사료품질에 관한 문제도 그 원인이 도입 옥수수 변패에 기인했

는지 아닌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이것이 옥수수 변패에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으려면 누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사료공장은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만을 능사(能事)로 할 것인가?

내부적인 경영합리화나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는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양축규모를 줄이자고 앞장서면서 뒤로는 오히려 늘리는 양축가는 없는지?

최근 신규 및 증설공장들의 손익분기 물량 확보를 위하여 무리하게 제시하는 거래조건에 현혹되어 양축규모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양축가는 없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축산잡지상에서나 또는 여러 형태의 모임에서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고 또한 필자 자신도 입에 거품을 물곤 했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만다.

70년대가 산유국(產油國)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식량수출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난다.

73년 어느날 갑자기 석유가격이 몇 배씩 뛰어올랐듯이, 80년대 어느날 식량또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주식(主食)식량조차 아직 자급자족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일어난다면 사료 원료의 80% 이상을 도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의 해결도 문제이겠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욱 큰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